

사·부·대·중

욕구의 도덕성



안옥선 전년대 기사·철학

한 스님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에 대한 양심고백은 불자들에게 불교도덕의 지향점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 불교도덕은 욕구나 행동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품성에 있어서 도덕성을 요청한다. 그래서 불교도덕은 간헐적인 선행이 아니라 모든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 욕구만을 갖는 상태, 그리하여 저절로 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성품의 상태를 지향한다. 서로 상이한 '갑', '을', '병'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갑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욕구를 가지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당연히 갑은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다. 을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욕구를 가진 점에서 갑과 같다. 그러나 그는 이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억제함으로써 도덕적일 수 있다. 병은 도덕의 성취 수준에 있어서 을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이다. 그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욕구 자체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욕구는 늘 도덕적이어서 욕구표출로서의 그의 행동 또한 늘 도덕적일 수

밖에 없다. 그는 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을은 도덕적이지만 병과 비교해 볼 때 온전하게 도덕적이지 못하다. 그는 욕구와 행동 사이에서 갈등하며, 외적으로는 도덕적일지라도 내적으로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비도덕적 욕구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에게 있어서 도덕은 구속이다. 그러나 병에 있어서 욕구와 행동은 상충하지 않고 일치하며 그에게 있어서 도덕은 자유의 실현이며 행복이다. 불교도덕은 이와 같은 병의 도덕을 지향한다.

불교도덕은 보통사람에게 요청되는 '을'의 도덕에 머무르지 않고 '병'의 도덕을 지향한다. 즉 욕구가 늘 도덕적인 상태, 혹은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도덕적일 수 있는 성품의 상태를 지향한다. 이렇게 보면 참수행자의 길은 멀기도 멀다. 그래서 '병'의 도덕은 커녕 보통사람의 '을'의 도덕조차 지키지 못하는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지는 것이다.

“암흑기 아니다” 조선불교 관심고조

조선불교가 깨어나고 있다. 근·현대불교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선불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선시대 스님들의 행장과 불교 문화가 기록되어 있는 금석문 연구서가 나오는가 하면, 당대 스님들의 사상이 녹아 있는 사기류의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수된 이래 13대 종사와 13대 강사를 배출했던 조선불교의 중심 도량인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둔사가 10월경 '조선불교연구소'를 개원키로 해, 조선불교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둔사는 3월 29일 조계사 교육문화관에서 '조선불교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연구소 개원을 향한 당을 올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보선(대둔사 주지) 스님, 김상현(동국대)·김상영(중앙승가대) 교수의 논문을 중심으로 조선불교의 연구 현황과 그 방향을 찾아본다.

대둔사 조선불교연구소 10월 개원 10년새 논문 252편... 연구영역 확대

지금까지 학계는 조선시대 500년의 불교를 어떻게 규명해야 할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동안 '송유역불'라든가 '불교암흑기', '선교(禪敎 쇠퇴기)'와 같은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쓰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들 용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산중불교시대'로 규정할 학자도 있지만, 이 역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학자는 15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의 조선불교를 '불교잠재시대(潛在時代)'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표현은 조선불교를 '민중(대중·서민)불교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지만, '잠재'라는 표현에서 조선불교의 수동성이 강조된 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이와 같이 학계에서 조선불교의 성격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상현 교수는 "조선불교 전체를 회통할 수 있는 사관이 정립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사관이 없는 것은 그만큼 연구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불교 연구 성과도 예외는 아니다.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조선불교를 다루고 있는 논문은 511편. 이는 원호 스님 한 사람에 대한 연구 성과와 비슷한 수치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고교정(高橋亨 일명 박사가 1929년에 저술한 <이조불교>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1400여 개의 사암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수행에 몰두했다. 임진왜란으로 왕조의 살림이 어려워진 시절에도 화엄사 각황전 등 전란으로 소실된 전각들이 복구됐다.

보선 스님은 "이 과정에서 조선불교는 고려불교와는 달리 토착화·기층화라는 경향을 강하게 띠게 된다"며 "따라서 고려시대의 불교를 연구하는 방법이나 주제로는 조선불교를 제대로 조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단 종단사보다는 조선불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으며, 그 결과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511편이라는 논문 수가 말해주듯 조선불교의 연구 수준은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 미래가 어두운 것은 아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논문 수는 252편. 이는 전체 논문 수의 50%를 웃도는 것이다. 조선불교에 대한 일련된 연구 성과를 감안해 볼 때, 이 시기의 논문 수는 일단 긍정적인 변화다.

반면 양적인 증가만큼 질적인 증가도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김상영 교수는 "사상사나 특정 인물을 주제로 한 연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



조계종 제22교구 본사(대둔사) 대둔사(주지 보선)가 3월 29일 서울 조계사 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한 세미나 모습.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3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회관을 가득 메운 채 학자들의 열띤 토론을 들었다.

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선불교의 관심이 연구 주제의 다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왕조의 불교정책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아 불교의 부정적인 측면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 지금까지 조선불교에 심어왔던 패배의식을 떨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조선불교 연구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김상현 교수는 "조선불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기금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로는 조선불교 연구 인프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연구 주제의 다변화도 이루

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조선불교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학제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기(私記)>와 같은 당대 스님의 사상서와 스님의 행장이 기록된 <동사열전>,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를 소개하고 있는 사지류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사료를 찾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조선시대 스님들의 근속과 한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오늘날의 불교가 무엇을 의지하고 경계할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시기별 현황

시기	~ 1946~	1946~ 1959	1960~ 1969	1970~ 1979	1980~ 1989	1990~ 1999	계
논문수	13	18	27	80	120	252	511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주제별 현황

연구주제	불교사일반	사상사	사원경제사	불교문화	기타
논문수	131	254	54	50	22

목탁소리

오종욱 (취재2부 기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교수의 '강화천도와 고려대장경 판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학문적 쿠데타라까지 평가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25년 간의 선배학자의 업적과 행정당국의 권위를 혼순간에 뒤엎는 소장 학자의 소신에 찬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주장이란 다를 아닌 "사적 295호 선원사지인원전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는 팔만대장경 판각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는 선배학자의 연구성과를 신성불가침한 경전처럼 취급해 왔다. 비록 의심이 가거나 잘못 내려진 결론이라도 후학들은 모르는 척하거나 정당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연구했을 뿐이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학계의 경직된 문화가 한 몫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수는 '경전' 과도 같은 판각지의 위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사실 77년 선원면 지산리 일대가 판각지로 부각되면서 '사적 제295호 선원사지'로 지정됐을 때, 역사·고고·불교학자들 중에는 이 교수처럼 '위치

학문의 쿠데타

가 틀리다'고 생각한 학자들은 많았다. <동국여지승람>이나 <강도지> 등 관련 학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역사·지리서 어디에도 선원면 지산리에 선원사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산리 일대를 선원사지로 지정한 것에 의문을 갖고, 그 타당성에 대한 공개 논의를 제기한 학자는 없었다. 선배학자의 연구와 행정당국의 권위에 누가 될까 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온 셈이다.

물론 업적과 권위에 맞선 이 교수의 학문 태도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교수가 왜 그랬는지, 학계와 행정당국은 체질상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으나 곰곰이 생각하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한 학계와 행정당국의 논의는 5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5월중 문화재위원회 의를 열고, 한국선학회는 6월중 월례발표회의 주제로 채택했다.

이 교수의 쿠데타가 잘못 지정됐을 수도 있는 사적지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구소 설립 추진 대둔사 주지 보선스님

“조선불교 가치 새롭게 정립”

"서산대사가 주석하셨던 해남 대둔사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따라서 조선불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그 시대 불교의 명암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0월경 '조선불교연구소' (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보선(대둔사 주지) 스님은 호국불교로만 폄하되고 있는 조선불교를 새롭게 조명해, 그 시대의 불교의 가치를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연구소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3월 29일 개최한 학술세미나를 "조선불교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제부터 연구소를 만드는 일에 몰두해, 조선불교를 복원하고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둔사가 주최하는 제1회 학술세미나는 서산대사 탄신 제481주년을 맞아 조선시대 불교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호국성지 성역화 사업의 첫 단추이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접점된 조선불교의 연구현황은 연구소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스님은 "연구소 설립을 위해 성역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사업을 확대했다"며 "10월경 연구소 발족과 함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논저 목록집>을 발간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선불교 연구 분야에 기폭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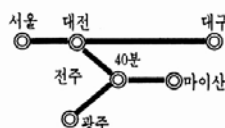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건전지용 초·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통간격

25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

사찰 전구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순정품)
- ▶ 종류 : 3W, 5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할라멘트 6배(특 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인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탐돌이, 방생) 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무료전화 (080) 5826-236 평생전화 (0502) 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 583-4023 FAX (032) 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길포동 ☎ (031) 986-0277~8